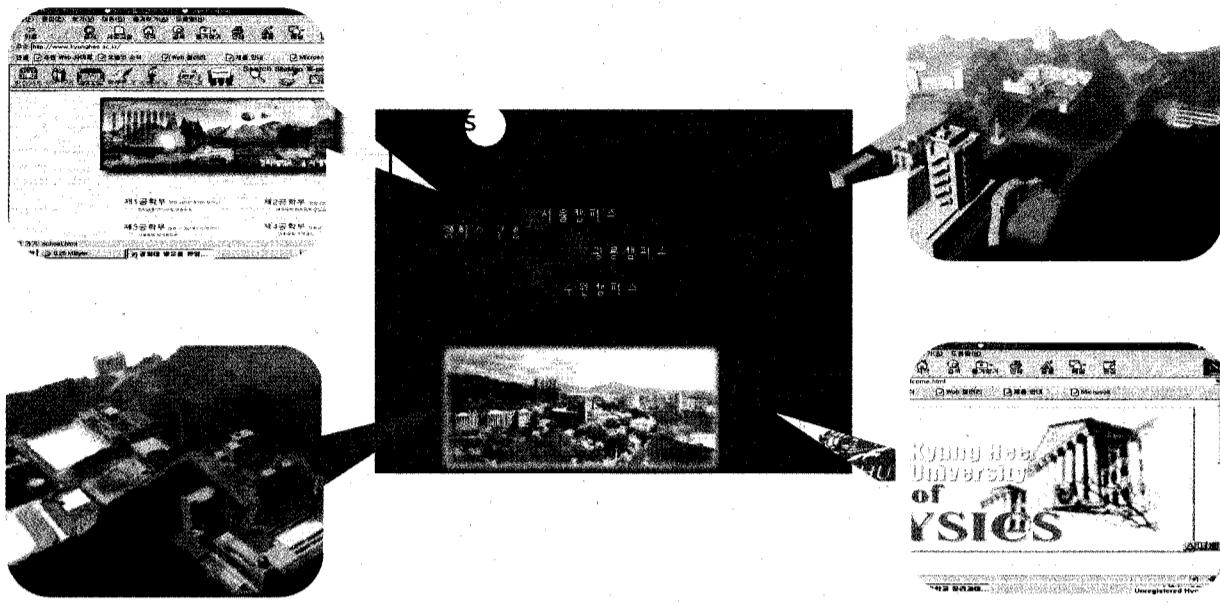


□ 기획취재 - 홈페이지를 진단한다

## 교내 개설 홈페이지 평가 71% 수준미달

### 관리 부서 정성 부족, 단위 부서 관심 부족의 결과

지난 1일부터 8일간 본보 조사팀이 양 캠퍼스의 행정부서, 부속기관, 대학원, 부설연구소, 학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우리학교 홈페이지에 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중 70% 이상이 보통 이하의 성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 우리학교 공식 홈페이지에 링크되지 않은 것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자료의 충실성, 신속성, 디자인, 사용자 편의성, 연결성 등 5개 내용을 조사 항목으로 한 이번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홈페이지는 전체 1백29개 가운데 양캠퍼스 중앙도서관, 국제교육원을 포함, 38개에 지나지 않는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91개 홈페이지의 경우, A-E로 평가 기준을 삼은 이번 평가에서 'C' 이하를 받아 보통 이하의 성적을 받았다.



▲구성원들의 지속적 관심만이 홈페이지의 내실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학교 홈페이지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부실하다는 것은 정보화를 교육 개혁의 주요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학교 정책에 반하는 일로서 심히 우려할 만하다. 이번 평가 지적된 우리학교 홈페이지의 단점으로는 학내 여러 홈페이지의 연결 및 효율적 관리가 부족하다는 점과 학생 편의기능의 부족, 사용자들을 위한 인터페이스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못지않게 심각한 문제는 홈페이지 내용이 부실하다는 것이다.

앞서 말한 문제점들의 경우, 각 단과

를 제공한다는 것 이외에 대외적으로 우리학교를 홍보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갖는다. 외부 홍보의 비중이 높은 기관의 경우, 그에 적합한 내용도 포함해야 한다. 예를 들면 평생교육원, 한의대, 제3의학 연구실, 국제교류센터 등은 외부인들의 접속 가능성이 높으므로 외부인에 대한 대외홍보 차원의 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홈페이지를 구축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홈페

이지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원칙이다.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로 정보화를 부르짖는 시대는 지났다. 겉모습 보다는 내면적으로 충실한 정보를 갖추고 있을 때 진정한 정보화가 이루어지고 더 나은 발전이 거듭될 수 있음을 구성원 전체가 상기해야겠다. (강남이 기자)

#### 교내 우수 홈페이지

- 〈서울·수원 종합〉  
중앙도서관 국제교육원 연구실험지원센터 신문방송국 중앙기센터 정보처리센터 국제법무대학원 아태국제대학원 재료과학기술연구소 레이저공학연구소
- 〈서울캠퍼스〉  
국어국문학과 철학과 지리학과 물리학과 생물학과 행정학전공 경제학전공 국제통상학전공 체육학과 간호학과 치의예/치의학과 약학과 한약학과
- 〈수원캠퍼스〉  
원어일문학과 러시아어과 물리학전공 화학전공 전자공학전공 전자계산공학전공 전파공학전공 섬유화학전공 화학공학전공 산업공학전공 기계공학전공 원자력공학전공 건축공학전공 토목공학전공



#### 늘 처음처럼

지난 7일 오후 3시부터 서울캠퍼스 노천극장에서 열린 제30대 총학생회 출범식 중 한 장면. 올 한해 늘 처음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전체 학생들을 아우를 수 있는 총학생회가 되길 기원한다

#### 지면안내

- 3 시사
- 6 사업자 문제 근본해결을 위한 방안 모색
- 6 기획
- 6 캠퍼스 공익과 어떻게 볼 것인가
- 8 문화
- 8 사이버 스타, 그들을 주목하라
- 9 경희의 이름으로
- 9 오락 (문리대 영문) 교수
- 12 Free Style
- 12 선(Line)

#### 유동준 교수 국민훈장 동백장 받아

지난 7일 세종문화회관 소강당에서 개최된 '제26회 보건의 날' 기념 시상식에서 유동준(의예)교수가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여받았다.

32년간 예방의학교수로 후진양성에 힘써온 공을 인정받아 정부 훈장을 수상한 유교수는 '월간 성인병' 신문의 편집인을 역임하고, 보건의료 및 성인병 예방 관련 도서를 52회에 걸쳐 출판한 바 있다. 또한 성인병 예방에 대한 학술, 관리기법 등을 연구·습득해 국민홍보용으로 활용토록 한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 (관련 인터뷰 2면)

#### 도정일 교수 현대문학상 평론부문 수상

오는 17일 오후 7시, 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개최될 '제43회 현대문학상 시상식'에서 도정일(영문)교수가 평론부문상을 받는다.

문학잡지에 수록된 글을 대상으로 시상하는 이상의 수상작으로 선정된 도교수의 작품은 '문학과 사회' 97년 여름호에 수록. 문화결핵에 대한 내용을 담은 '우리는 모르는 것을 경배하니'이다. 이 날 시상식에서는 도교수 이외에 천양희씨와 윤대녕씨가 시부문과 소설부문을 받게 된다.

#### 제1회 명예학사 수여식

지난 6일, 7일 우리학교는 고순호씨, 오세진 한국체대교수, 최신원(주)SK 부회장 등 32인에게 명예학사를 수여했다. 지난 88년 3월 정외과를 수료한 고순호씨는 사회적 공적을 인정, 수여하게 되었으며 지난 68년 이후 현재까지 야당 정치활동을 통해 민권신장에 기여하고, 95년 의정부에서 경기도 의회의원에 당선, 민주헌정회 부위원장, 아태평화재단 경기도 북부지부장, 새정치국민회의 이북 5도특위 부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한편 우리학교는 권투분야에서 한국인 최초로 세계 챔피언을 획득했던 김기수씨에게도 명예학사학위를 수여한바 있다.

## 취업비상 끝이 보이지 않는다

### 취업을 작년 대비 약 20% 감소, 취업정보실 대책 마련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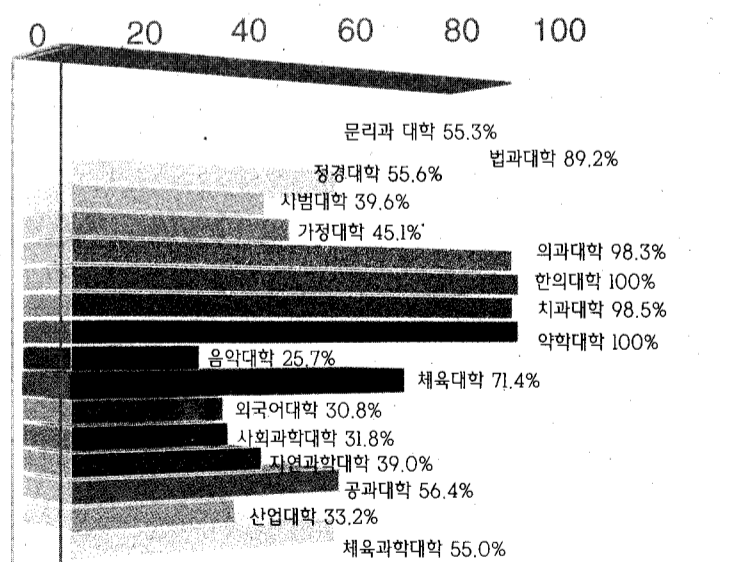
취업비상이 남의 일이 아니다. 취업정보실이 발표한 지난 97학년 졸업생 취업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캠퍼스의 경우 전체취업률이 64.2%를, 수원캠퍼스의 경우 42.9%의 취업률을 나타냈다. 이는 작년에 비해 20% 가까이 감소한 수치이다. 단과대학 별 취업율을 보면 서울캠퍼스의 한의과대학과 약학대학은

1백% 취업율을 보인 반면, 음악대학과 수원캠퍼스 외국어대학의 경우 각각 25.7%와 30.8%의 저조한 성적률 보였다. 또한 작년 취업률 1백%를 기록한 전자공학과는 올해 76.9%의 취업율을 기록하는데 그쳤다. 가장 낮은 취업율을 보인 학과는 입학과로 14.3%의 취업율을 기록했다.

이처럼 사상 최악의 취업율을 기록한 가장 큰 원인으로서는 단연 국내 경제 불황을 꼽을 수 있다. 실제로 예년 이맘때면 직인 총인원이 각종 공문이 쇄도한 것에 비해 올해의 경우, 공기업의 채용 계획이 아주 없을뿐더러 작년 대졸 합격자 가운데 30%가 미발령 대기상태에 있어 채용의 폭 확대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로 보인다.

이에 학교측은 취업지도를 다양화 하는 한편 활성화시키고 취업상과 관련된 집단상담도 실시할 계획이다. 아래 그래프는 단과대학별 97학년도 졸업생 전체 취업율을 나타낸다. (취재부) ※전체취업률 = 취업자 / (졸업생-진학-국시 CPA-입대) × 100

#### 98년 졸업생 취업률 현황



▲올해 가장 높은 취업률을 보인 단과대학은 한의과 대학과 약학대학이며 가장 낮은 취업률을 보인 단과대학은 음악대학이다

#### 조영식 학원장 간디평화상 수상

조영식 학원장 간디평화상 시상식이 지난 10일 오후 4시 30분 서울캠퍼스 본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한동 국제교류센터 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김수곤 부총장의 학원장 약력 소개, 간디평화재단 설립자 구하 아말텐두 교수의 시상, 조영식 학원장의 감사, 백남욱(성악) 교수의 축하 순으로 진행되었다. 조산계 교육부 차관, 조영원 총장, 정동성 총동문회장이



▲구하 교수가 조 학원장에게 간디평화상을 수여하고 있다.

#### 대화만이 희망이다

교육부는 머지않아 개방된 대학시장에서 대비하여 각 대학에 적극적으로 학부제를 실천토록 방침을 내렸다. 우리학교 역시 이와 관련 몇 개학과를 통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수요자인 학생들과 크고 작은 마찰을 빚고 있다. 지난 8일, 지리학과 학생들은 학부제를 반대하는 자신들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본관앞에서 한시간 남짓 목소리를 높였다. 학생들의 주장은 자신들이 교육의 수요자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측이 행정적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 의견 반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들은 "지리학과는 인문과 자연을 모두 포괄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도 학교 당국은 교육부의 방침과 경쟁력이 없는 학과라는 이유를 들어 단일 학부는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면서, "학교측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통합적 학부가 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대학은 자율화를 맞이하여 구조조정을 통해 대학의 입지를 세우어만 하는 입장에 처해 있다. 그로 인해 경쟁력은 포기할 수 없는 큰 떡이요 그들이 내세우는 사정의 칼날이 가장 먼저 닿게 되는 곳은 경쟁력이 미약한 과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생각의 차이에서오는 학교측과 학생의 마찰은 어쩔 필연적인 것이다. 학교측은 학생들의 강한 반발로 인해 일단 통합적 학

부제를 유보하겠다는 입장이다. 4월 10일까지 교육부에 제출해야 하는 99학년도 대입 입시 계획 주요 사항에도 지리학과와 타 학부 통합의 내용은 넣지 않을 것이며 최종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7월 말까지 삼중체의 위원회를 마련, 회의를 정례화하여 충분한 토의를 거치겠다고 학교측은 밝히고 있다. 학교는 삼중체가 모두 구성되며 그중에서도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들의 의견이 중요한 흐름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함께 이야기 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런 일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학생뿐만 아니라 교수를 포함한 삼중체의 충분한 토의와 합의가 전제 될 때 진정한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이다. (고세희기자)



교시탐

중간고사로 2주간 휴강합니다.

**기획광고**

**캠핑, 이제 그만!**

하연비뒤에 쓰여진 깨알같은 글 두근거리는 마음 그럴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번 한번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끄러운 젊음의 초상 다시 한번 보고 싶지 않습니다.

#### 사 고

**제9회 대학주보 시문에 현상공모 개교 40주년 창간 43주년기념**

- 공모지역: 우리학교 재학생(대학원생 제외)
- 접수방법: 자필시 3면이상 제출 A4용지 출력 및 용모작품이 들어있는 플로피 디스크(3.25) 제출
- 접수기간: 1998년 4월 13일부터 5월 9일 오후 5시 까지
- 연락처: 서울 02)961-0093~5 수원 0331)201-2055~6

대학주보사